

Title: The Judges – Sermon 8: Sermon notes

Scripture: Judges 11:1-8

Date preached: May 8th 2022

Scripture: Judges 11:1-8

1 Now Jephthah the Gileadite was a mighty man of valor, but he *was* the son of a harlot; and Gilead begot Jephthah. **2** Gilead's wife bore sons; and when his wife's sons grew up, they drove Jephthah out, and said to him, "You shall have no inheritance in our father's house, for you *are* the son of another woman." **3** Then Jephthah fled from his brothers and dwelt in the land of Tob; and worthless men banded together with Jephthah and went out *raiding* with him. **4** It came to pass after a time that the people of Ammon made war against Israel. **5** And so it was, when the people of Ammon made war against Israel, that the elders of Gilead went to get Jephthah from the land of Tob. **6** Then they said to Jephthah, "Come and be our commander, that we may fight against the people of Ammon." **7** So Jephthah said to the elders of Gilead, "Did you not hate me, and expel me from my father's house? Why have you come to me now when you are in distress?" **8** And the elders of Gilead said to Jephthah, "That is why we have turned again to you now, that you may go with us and fight against the people of Ammon, and be our head over all the inhabitants of Gilead."

1 길르앗 사람 입다는 뛰어난 용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다. **2** 그리고 길르앗의 아내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자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였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므로 우리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3 그래서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들어가 살았다. 그러자 못된 녀석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랐다. **4** 얼마 후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5 길르앗 지도자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6**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 주시오." **7**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나를 찾아왔소?" **8**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게 된 것은 당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웁시다. 그러면 당신이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Review

Last time we examined judges 6 and 7; Tola and Jair. When I looked back on my notes I realised that all I had written for each man was about a paragraph. This wasn't a reflection of my laziness, or evidence of a lack of research. The reason I had so little to say was simply because the bible tells us next to nothing about these men. Tola's story is told in just two bible verses. Jair does only marginally better as his story takes up just three verses. It is this lack of detail that results in Tola and Jair being classified as minor judges.

In their own time they were significant and important people. God had appointed them to judge or lead his people.

This was an important position and one, judging on their length of service that they did well. In their roles as judges both men undoubtedly said and did some meaningful things. But sadly we do not have a record of those words or acts today. Let us very briefly review what we said last time.

Tola was the 6th judge. His name as I'm sure you remember means "worm." He was raised up by God to save His people. Sadly we do not know from whom he saved them. We do know that his father was Puah and his grandfather was Dodo. We are also told he was from the tribe of Issachar and that he lived in Shamir in the mountains of Ephraim. The only other information we are given

about him is that he judged the nation for 23 years and was buried in Shamir.

We then looked at the 7th judge, Jair. His name meant “God enlightens.” That is, to me at least a more preferable name than worm. He was a Gileadite which means he was from the tribe of Gad. He would judge Israel for 22 years. We are also given some information about his family. He had 30 sons. This means of course that he had multiple wives. To have such a large family meant that he was a rich and prosperous man. This is emphasised in the text when we are told that each son had their own donkey. A donkey was a luxury item in those times. Imagine a luxury foreign car like a Mercedes Benz today. To be able to afford thirty donkeys meant Jair was a very wealthy man. Each son not only a his own donkey but also his own town to rule over. These towns were collectively known as Havoth Jair which means “cities belonging to Jair.” when Jair died he was buried in Camon.

And that is all we can say with any certainty about Tola and Jair.

Fortunately that is not the case for our next judge. Judge number 8 is a major judge. His name is Jephthah and we will begin our study of him today and conclude it next time. Before we look at his calling and his first acts as judge let us put his information into the cycle of sin.

지난번에 우리는 판사 6 과 7 을 조사했습니다. 톨라와 자이르. 내 노트를 뒤돌아 봤을 때 나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쓴 모든 것이 한 단락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게으름을 반영하거나 연구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할 말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성경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톨라의 이야기는 단 두 개의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Jair** 는 그의 이야기가 단 세 구절을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만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Tola 와 **Jair** 가 부판사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이러한 세부사항의 부족입니다. 당시 그들은 중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한 봉사 기간으로 판단할 때 중요한 위치이자 하나였습니다. 판사로서의 역할에서 두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의미 있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톨라는 6 대 판사였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의 이름은 "벌레"를 의미합니다. 그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그가 누구에게서 그들을 구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부아였고 그의 할아버지가 도도였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잇사갈 지파 출신이며 에브라임 산지의 사미르에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는 유일한 다른 정보는 그가 23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샤미르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어 7 대 사사인 야일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은 “하느님이 계몽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적어도 나에게는 벌레보다 더 바람직한 이름입니다. 그는 갓 지파 출신이라는 뜻의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2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그에게는 30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가 여러 아내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대가족이 있다는 것은 그가 부유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각 아들에게 자신의 당나귀가 있다고 말할 때 본문에서 강조됩니다. 당나귀는 당시 사치품이었습니다. 오늘날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고급 외제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나귀 30 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야일이 매우 부유한 사람임을 의미했습니다. 각 아들은 자기 나귀뿐 아니라 자기 성읍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성읍들은 집합적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야일에 속한 성읍들”을 의미합니다. 야일이 죽었을 때 그는 카몬에 묻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Tola 와 **Jair** 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다행히 다음 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8번 판사는 주요 판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입다이고 우리는 오늘 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다음 시간에 끝낼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과 심판자로서의 그의 첫 번째 행동을 살펴보기 전에 그의 정보를 죄의 순환에 넣어 봅시다.

Jephthah cycle of sin

Sadly once again the people of Israel fell away from God. In Jephthah's time their apostasy was dramatic and extreme we read in chapter 10 the following;

슬프게도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입다 시대에 그들의 배도는 극적이고 극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10장에서 읽습니다.

They (the people of Israel) served the Baals and the Ashtoreths, and the gods of Aram, the gods of Sidon, the gods of Moab, the gods of the Ammonites and the gods of the Philistines. (Judges 10:6)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그리고 시리아,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으며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 (Judges 10:6)

God in His righteous anger permitted both the Philistines and the Ammonites to gain power and oppress His people. This oppression would last for 18 years before the people cried out to God. God raised up Jephthah and he would lead the people for 6 years. We are going to break our study of Jephthah into two parts. Today we will consider his background, his calling to be a judge and his attempted negotiation with the Ammonites.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압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18년 동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일으키셔서 6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입다에 대한 연구를 두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배경, 재판관으로서의 부르심, 암몬 사람들과의 협상 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ntroduction: The background

To begin Jephthah's story we need to paint a picture of Israel at that time. They had under the judges Tola and Jair enjoyed 45 years of peace. But sadly that ever recurring cycle of sin began again once Jair was gone. Again the people rejected God who had done so much for them and turned to worthless pagan deities. Chapter 10 verses 6 and 7 neatly summarise the situation for us.

입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돌라와 야일은 사사 아래서 45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은 야이르가 떠나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신 하나님을 다시 배척하고 무가치한 이교 신들에게로 돌이켰습니다. 10장 6절과 7절은 우리의 상황을 깔끔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6 Then the children of Israel again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toreths, the gods of Syria, the gods of Sidon, the gods of Moab, the gods of the people of Ammon, and the gods of the Philistines; and they forsook the Lord and did not serve Him.
7 So the anger of the Lord was hot against Israel; and He sold them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and into the hands of the people of Ammon. (Judges 10:6-7)

6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그리고 시리아,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으며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 7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Judges 10:6-7)

Note in verse six the range of different gods they turned to. We are told that they served seven different deities. Not simply the local gods of the Cannanites (Baal and Ashtoreth) but they also served foreign gods. This indicates their extreme apostasy. It also represents a new low for the people of Israel. It seems as if they were actively seeking out gods to worship other than Yahweh. It is not surprising that God burned with rage against His people. He allowed the Philistines and the Ammonites to oppress the people. This terrible oppression would last for 18 years. At the end of this period the people cried out to God and confessed their sin. This was it seems motivated in part by the action taken by the forces of the Ammonites. They had amassed and were ready for war. At such times of national crisis people call out for a hero to step forward. In Korean history we might think of Admiral Yi Sun Shin, in Britain we typically think of Winston Churchill. Let me read what the people say in Judges 10 verse 18;

“Who is the man who will begin the fight against the people of Ammon? He shall be head over all the inhabitants of Gilead.”

It's interesting that they are looking for a man and not God to act. They could have said let us pray and plead for God to intervene. Instead they seek a man to fight for them. This will be the call for Jephthah to step up. As we will see he is something of an unlikely hero. Lets turn now to today's passage.

6 절에서 그들이 향했던 다양한 신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7 개의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바알과 아스다롯)의 지방 신들뿐 아니라 이방 신들도 섬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극도의 배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저점을 나타냅니다.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들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백성을 압제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끔찍한 억압은 18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암몬 군대가 취한 행동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모여 있었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영웅이 나서야 한다고 외칩니다. 한국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할 수 있고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윈스턴 처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사기 10 장 18 절에서 말하는 것을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자가 누구냐? 그는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들을 위해 싸울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나서라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는 있을 법하지 않은 영웅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Now Jephthah the Gileadite was a mighty man of valor, but he *was* the son of a harlot; and Gilead begot Jephthah.

This is our introduction to Jephthah. His name means “He opens” or “He releases.” He was a

Gileadite which means he was from the tribe of Gad. They were located on the eastern side of the Jordan river. The next thing we are told is that he was a mighty man of valor. This expression is shorthand for someone who is a brave, accomplished and respected warrior.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he possessed in fighting made him an excellent choice to lead the army into battle. This is a very different situation to which we first met Gideon. He was timid and afraid. He was yet to become a mighty man of valor. Jephthah by contrast was already a brave warrior. However he did have one thing going against him. He came into existence through a relationship between his father, Gilead and a prostitute. This meant that through no fault of his own was an illegitimate child. A situation as we will see in the next verse that made things very difficult for him.

입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열다" 또는 "그가 놓아주다"를 의미합니다. 그는 갓 지파 출신이라는 뜻의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듣는 것은 그가 용맹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용감하고 성취하며 존경받는 전사의 줄임말입니다. 그가 가진 전투 경험과 전문 지식은 군대를 전장으로 이끄는 탁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와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그는 시간이 촉박했고 두려웠다. 그는 아직 용감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입다는 이미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길르앗과 창녀와의 관계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생아임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보게 될 상황이 그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 Gilead's wife bore sons; and when his wife's sons grew up, they drove Jephthah out, and said to him, "You shall have no inheritance in our father's house, for you *are* the son of another woman."

Clearly it was not a good thing that Jephthah's father had visited prostitutes. It obviously doesn't speak well about his character.

However, in his favour unlike some of the other judges he only had one wife. With her he had a number of legitimate sons. As they grew older their antagonism towards their illegitimate brother grew stronger. They certainly did not want to share their rightful inheritance with him. In this respect they had the Mosaic Law on their side. In Deuteronomy 23:2 we read that an illegitimate child cannot join the Lord's congregation for 10 generations. In the end they drove Jephthah from the family home.

입다의 아버지가 매춘부를 방문한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성격에 대해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판사들과 달리 그에게는 아내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그는 많은 합법적인 아들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생아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의 정당한 유산을 그와 나누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3 장 2 절에 사생아는 10 대 동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입다를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3 Then Jephthah fled from his brothers and dwelt in the land of Tob; and worthless men banded together with Jephthah and went out *raiding* with him.

Jephthah fled and went to dwell in the land of Tob. This area was located between Ammon and Syria in the north east of Gad. It is whilst here that he establishes a band of adventurers. I think we might picture them rather like Robin Hood and his merry men. They are described here as being

worthless men. In the Hebrew this is the word “*rake*.” It describes someone who is “worthless, idle or empty.” I think there are two possible ways that we can look at this group. Possibly it was made up of social outcasts or misfits. Men who did not fit into normal society. On the other hand it may have been made up of men who for a variety of reasons had nothing better to do. These men were looking for action and adventure and were drawn to the powerful figure of Jephthah. This group engaged in raids. Who or what they raided is not given to us. I think it most likely that they raided the enemies of Israel. This work is ideal preparation for war so it's not surprising that the elders of Israel looked towards Jephthah when crisis came.

입다는 도망하여 돕 땅으로 갔다. 이 지역은 갓 북동쪽에 있는 암몬과 시리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모험가 무리를 결성합니다. 나는 우리가 그들을 로빈 후드와 그의 명랑한 사람들처럼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무가치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갈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가치 없고, 게으르거나 공허한” 사람을 묘사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 그룹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나 부적응자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남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잘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액션과 모험을 찾고 있었고 강력한 입다의 모습에 끌렸습니다. 이 그룹은 습격에 참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습격했는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습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전쟁에 대한 이상적인 준비이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입다를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4 It came to pass after a time that the people of Ammon made war against Israel. 5 And so it was, when the people of Ammon made war against Israel, that the elders of Gilead went to get Jephthah from the land of Tob. 6 Then they said to Jephthah, “Come and be our commander, that we may fight against the people of Ammon.”

Soon the geo-political situation became more desperate. The Ammonites were making war against God's people. It appears that at this time they lacked a good strong leader. At times of crisis we need a strong and focused head of state. Who can they get to help them out in this dire time. They need someone who is brave, violent and handy with a sword. Whoever will they find? Its interesting that this exact storyline is often played out in contemporary films or dramas. A town or region has driven a violent misfit to its margins but calls him back when they need his help in times of trouble. The film “Jaws” is a good example. No one wants the great shark hunter Captain Quint (played by Robert Shaw) around in times of peace. He is a coarse, rude, rough and violent. However when a large shark begins eating people they turn to Quint for help.

This is what happens here. They were happy to drive Jephthah away until they need his particular skill set. The elders of Gilead travel to the land of Tob to beg him to come back. Lets see how Jephthah responds.

곧 지정학적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좋은 강력한 지도자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국가 원수가 필요합니다. 이 무서운 시기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용감하고 폭력적이며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찾을 것인가? 이 정확한 줄거리가 현대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을이나 지역은 폭력적인 부적합자를 주변 지역으로 몰아넣었지만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다시 부릅니다. 영화 '쥬스'가 좋은 예다. 아무도 평화로운 시대에 위대한 상어 사냥꾼 키프 대위(로버트 쇼가 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칠고

무례하고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큰 상어가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Quint 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입다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때까지 기꺼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돕에게 돌아오기를 간청하기 위해 돕 땅으로 여행합니다. 입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7 So Jephthah said to the elders of Gilead, "Did you not hate me, and expel me from my father's house? Why have you come to me now when you are in distress?" 8 And the elders of Gilead said to Jephthah, "That is why we have turned again to you now, that you may go with us and fight against the people of Ammon, and be our head over all the inhabitants of Gilead."

This is a wonderful exchange. What Jephthah says here rings true. His words are the words of all throughout history who have been poorly treated or abused by others. Jephthah is clearly very sceptical about their motives in coming to see him.

Basically what he says to them is this, "You hated me and were happy to see me driven from my home. Now you are in trouble you want my help, but why should I help you?"

The elders of Gilead have to admit that in these desperate times they need his help. As an incentive for him to come with them they promise to make him their leader and will do as he says.

Jephthah agrees to go with them and lead the army against the Ammonites.

이것은 멋진 교환입니다. 입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남에게 가혹한 대우나 학대를 받은 역사를 통틀어 모든 사람의 말이다. 입다는 자신을 보러 온 동기에 대해 분명히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당신은 나를 미워했고 내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곤경에 처해 내 도움을 원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합니까?" 길르앗 장로들은 이 절박한 시기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그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그가 말한 대로 할 것입니다. 입다는 그들과 함께 가서 군대를 이끌고 암몬 사람들을 치기로 했습니다.

The negotiation

Let us end our examination of Jephthah today by talking about his approach to the Ammonites. Rather than just rushing into war Jephthah tries first to negotiate with the king of Ammon. Far better to see if you can discuss and settle things without bloodshed. This illustrates that Jephthah was not all brawn, he had brains as well. He begins by asking why the Ammonites are in Israel. Their answer is that it is their land and was wrongly taken by Israel. Jephthah patiently explains that this is not the case. When Israel came into the area, these lands were controlled by the Amorites, not the Ammonites. And the Amorites had previously taken it from the Moabites. This was now the land that God has given His people Israel. They would not give it up without a fight. As you might imagine these are not the words that the king of Ammon wants to hear. Although Jephthah tried for a peaceful resolution a battle is coming. Next week we will see what happens.

입다가 암몬 사람들에게 접근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암몬 왕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유혈사태 없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완전히 건장한 사람이 아니라 두뇌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유를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것이 그들의 땅이고 이스라엘이 잘못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렇지 않다고 참을성 있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은 암몬 사람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은 이전에 그것을 모압 사람들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암몬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나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논평을 할 것이 있습니다.

1 God can use what the world casts aside

Jephthah was in some ways an unlikely hero. He was the illegitimate child of a prostitute. His brothers and no doubt others in the town looked down on him. Probably he was ridiculed and teased. Eventually he was driven out of his home. He became an adventurer and probably thought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serve his community again. But often what the world casts aside God can us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God does not judge in the silly, limited and often foolish ways that we do. We often put limitations on what people can do. That old frail woman could never be a missionary. That quiet person who stutters could never teach the bible. But God can and does use such people. So let us not judge harshly and look down upon others. Let us open ourselves up even in our weaknesses to serve the Lord.

입다는 어떤 면에서 의외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매춘부의 사생아였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도시의 다른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를 멸시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조롱과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모험가가 되었고 아마도 다시는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세상이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리석고 제한적이며 종종 어리석은 방법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둡니다. 그 노쇠한 여자는 결코 선교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조용한 사람은 결코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열어 주님을 섬기도록 합시다.

2 Let us be peace makers before we are war mongers

Jephthah was very wise. He knew the Ammonites had a strong and powerful army. He knew that if physical fighting broke out many would be injured or killed. Therefore he tried first to negotiate and talk through the situation. He hoped that a discussion might resolve things. Ultimately he was not successful but his approach was right. We should always try to seek for a peaceful resolution to conflicts. How much hurt and harm is caused when we respond in anger. How much better might things be with our husbands, wives, children and work colleagues if we tried to be peaceable before we got angry and attacked. So let us pray for wisdom and insight so that we can bring peace rather than war to our world.

입다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들에게 강력하고 강력한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싸움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상황에 대해 협상하고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토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옳았습니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로 반응할 때 얼마나 많은 상처와 피해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공격을 받기 전에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한다면 남편, 아내, 자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전쟁보다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위해 기도합시다.